지역 소식통

고창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매월 민원처리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원 3만3257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이 중 즉결기타·제증명 2만1742건, 단순 민원 1만77건, 복합민원 1399건, 고충민원 39건이 접수됐다.

2일 이상 해결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결과, 법정처리일 기준 단축률 69.2%을 보이고 있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도래 전에 처리해 단축률을 높여갈 방침이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사전심사청구,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감동 행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특히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점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소방서, 벌 쏘임 주의 당부

부안소방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벌들의 활동도 왕성해짐에 따라 벌집제거 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벌 쏘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부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39건으로 전달 7건과 비교하여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맹독과 강한 공격성으로 대표 되는 말벌은 폭염이 한창인 7~9월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며 주로 주택 처마나 아파트 베란다, 가로수 등 생활공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벌 쏘임 피해를 예방하려면 주변에 음료, 과일 등 단 음식을 두지 말고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수 및 화장품과 어두운 색상의 의상 착용을 피해야 한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손톱으로 침을 잘라내지 말고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침을 뽑아 내야하며, 목이 붓거나 기침을 하는 등 쇼크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벌집 발견 시 벌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직접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고품격 한옥체험 '인기몰이'

'정읍 김명관 고택(중요민속자료 제26호)의 향기를 찾아서'가 고품격 한옥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 정읍시와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의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이하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가 문화재청이 주관한 2017 생생문화재사업에 선정돼 1박 2일 무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로 선정돼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는 모두 8회(1박2일)에 걸쳐 진행된다. 매회 30명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높은 인기 속에 신청자가 몰려 올해 예정된 8회 프로그램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

여기에는 전북도 내는 물론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참가하고 있다.

연령과 직업군도 다양하여 교사에서 학생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연령대도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김명관 고택의 건축 이야기에서부터 김명관 고택 한옥 체험과 사진 찍기, 김명관 고택에 대한 토론을 통한 생각 나누기, 정읍의 명품 건축 답사, 문화재 보호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첫날은 진행되는 '김명관 고택의 건축 이야기'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와 인간문화재 제 74호인 최기영 대목장, 전북대학교 남해경 교수 등이 참여해 김명관 고택과 한옥에 관한 다양한 건축이야기를 들려준다.

한체험은 김명관 택의 사랑채 한옥 모형을 제작하면서 한옥의 구조와 용어, 특히 김명관고택의 건축적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특히 . 그리고 한옥 제작 과정인 먹줄기와 대패 실습, 한옥공구 사용 체험 등이 진행된다.

저녁에 진행되는 '명관 고택에 관한 생각 나누기' 고택에 대한 느낌과 한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나누며 우리나라 건축의 매력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또 사진 찍기는 낮에 집안 곳곳을 둘러보면서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수 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틀째에는 정읍의 명품 한옥건축 답사가 진행된다. 정읍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 건축물인 무성서원과 피향정 등을 답사하면서 정읍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한다.

이와 함께 참가자 전원이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을 펼치며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문화지킴이로서의 의지도 다진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을 정읍에서 구매함은 물론 참가자들의 식사를 마을부녀회가 '엄마의 밥'이라는 컨셉트(concept)로 마을 농산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다 마을 회관을 숙박 소로 이용, 지역민들의 소득사업으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가 순회 농기계 수리활동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영농 현장을 찾아 농기계를 수리해줌으로써 농가의 영농 편의를 돕고 있다.

기술센터는 영농 활동이 한창인 이달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농기계 수리활동을 편다.

농기계 수리센터와 멀리 떨어진 농가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 읍면을 방문해 농기계를 점검·정비하는 한편 자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최근 사용이 많은 경운기와 동력 분무기, 관리기, 예취기 등 소형 농기계이다.

기술센터는 이와 함께 이달 중 매주 수요일을 '내방수리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이날은 기술센터 농기계 교육장에서 수리하고 안전사용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는 농작업 전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 후 적기 손질하면 성능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며 세심한 농가의 농기계 사용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빈 틈 없는 순회수리 활동으로 농가의 영농 편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저수지 농업용수 확보 준설사업 추진

고창군이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용량이 부족한 저수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저수지 준설사업은 상하면 판정제, 대산면 남월제 등 28개 저수지에 총 22억2600만원을 투자해 시행한다.

저수지 준설은 과거 표피정도만 준설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최대한 심도를 깊게 하고 주변 유지답까지 준설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403ha의 농경지에 가뭄을 완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민선 6기 고창군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아산면 당산제 등 22개의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 농업용수 9만7182톤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환경이 취약한 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장거리 농산물 집하 따른 생산자 불편 해소

부안군은 2018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은 시군별 거점농산물유통센터((APC) 기능 보완과 소규모 상품화시설 구축을 통한 장거리 농산물 집하에 따른 생산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1년 이상 참여한 조직 및 품목 광역조직으로 조합 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해당된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으로 사업 선정 시 개소당 8억 원 이내를 지원하며 재원은 국비50% 시군비 30% 자담 20%(품목 광역조직 국비 50% 자담 50%) 등이다.

지원내용은 농산물집하장·선별장·포장장·출하 장·저온창고·기타 부속설비 등 건축공사와 전기·소방·통신공사 및 시설·설비·장비류 설치공사, 감리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농업경영과 유통마케팅팀(☎ 063-580-4832)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동근 농업경영과장은 "공동선별·출하 확대로 상품성 향상 및 시장교섭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 행복학습센터 4개 프로그램 개강

부안군은 교육부가 주최한 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일부터 행복학습센터 2개소(부안읍행정복지센터, 변산면 격하마을 경로당)를 지정해 운영한다.

행복학습센터는 주민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습공동체 육성 등을 위해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거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안군은 이달부터 오카리나, 자서전쓰기, 나만의 가구 만들기, 가야금 등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안군은 주민의 자기계발은 물론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 취미활동 등 지역사회에 평생학습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향후 행복학습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하반기 일자리 형 프로그램(행복학습매니저, 생활정원사, 드론지도자, 치매예방지도자) 및 지원형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